

일본강소기업 No.41

치요다흥업(千代田興業)
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大阪市北区梅田2-1-24
- 분 야 : 기계 부품
- U R L : <http://www.chiyodakogyo.com>

2) 기업 소개

□ 대기업을 증산을 배경으로 실적 확대

- 치요다흥업은 산업용기기 전문 종합상사로 제안, 설계, 제작까지 자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
- 이 회사가 취급하는 주력 상품은 액정용 광학필름의 고정밀도 롤을 비롯한 운반용 물류기기 등임
-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코니카 미놀타 홀딩스를 비롯하여 도레이, 테이진 등의 화학·섬유 분야의 주요 대기업들임
- 최근 샤프가 오사카만 사카이(堺)시에 최신의 액정 패널 공장을 착공하는 등 액정산업의 증산에 따라 필름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
- 더불어 필름을 감는 코어와 운반용 구조물 수요도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약 70억 엔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- 액정패널은 7세대, 8세대, 10세대로 점차 대형화되면서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음
- 패널이 커지면 그만큼 필름 무게도 늘어나고 운반용 구조물도 보다 견고하고 강도가 높아져야 함
- 지금까지 사용되던 알루미늄이 철제로 대체되고 이와 함께 트럭 등으로 수송할 때 진동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짐

□ 물 처리 장비시장을 새롭게 개척

- 이 회사의 매출에서 액정 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70%에 해당됨
- 액정 분야는 아날로그 방송의 폐지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힘입어 당분간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
- 그러나 그 이후 시장변화를 예상하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임
- 그래서 액정관련 제품에 이어 또 다른 핵심 사업으로 물 처리용 부품을 비롯한 환경관련 분야를 적극 육성할 방침임
- 물 처리 장치시장은 중동에서 대량수요가 예상되는 해수담수화 장치를 비롯해 정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물 처리 장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
-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일본의 도레이와 코니카미놀타, 데이진 등 화학 대기업과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를 통해 쌓은 신뢰가 최대의 영업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
-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 처리 장비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관련 상품을 늘려갈 계획임

- 그 주요 제품은 집수관(集水管)이 될 것으로 보임
 - 바다에서 끌어올린 담수, 고급 정화수, 반도체용 정화수 등에 기존에 확보한 가공기술과 파이프 성형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 - 한 번에 대량의 물을 처리하는 해수담수화장치에서는 강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파이프가 필요함
- 해외 시장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인도네시아에 베어링 관련 자회사에 만든데 이어 지난 2007년에는 서울에 지점을 개설했음
 - 샤프에 납품하는 제품을 비롯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수주확보를 겨냥한 포석임
 - 일본 국내 고객을 상대로 배양한 고품질 및 제품관리체제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임

□ 환경 분야 진출

- 원래는 방사 등 섬유용 제품이 주력 상품이었으나, 일본 국내 섬유 업체들이 생산품을 섬유에서 합성화학, 액정필름으로 전환하면서 이 회사의 제품도 하이테크 분야로 이동했음
 - 샤프와 삼성에 납품하는 닛토전공(日東電工)을 비롯해 아사히가세이와 코니카미놀타 그룹, 후지필름 등 주요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기업의 최대 강점임
 - 액정산업 호조로 지금은 액정필름 관련 비율이 높지만 앞으로는 핵심 상품을 점차 환경 관련 분야로 옮길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